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 II

(시편 18:25-50)

### 1. 축복의 중요한 원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25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을 따라 적당하게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26절).

다윗은 이 부분을 쓰면서 아주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스름’이라는 말은 ‘엎히다, 꺾이다’의 뜻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꺾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거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주님은 그가 소경됨은 자기의 죄 값도 부모의 죄 값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9:3).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가지만 경건치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영국의 역사학자 Herbert Butterfield는 그의 저서 ‘기독교와 역사’에서 악한 자는 영원히 번영을 누리지 못하나 선한 자는 결국 상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본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물든 동산 같고 열매 맺는 풍성한 가지와 같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지 못하여 저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 2. 반복되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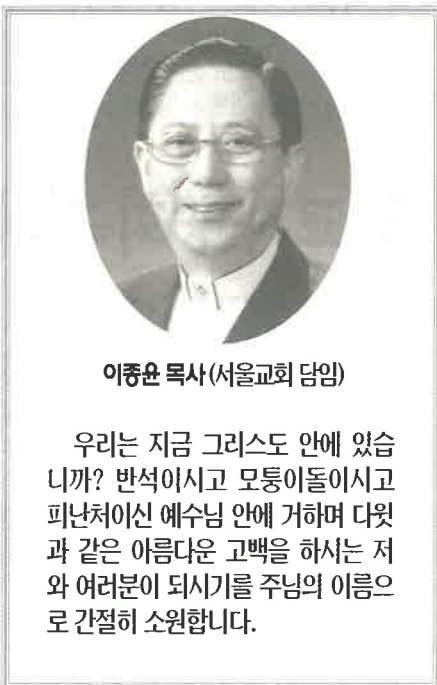
본문 30-4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전반부의 4-19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최선, 혹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전반부의 자비는 모세, 여호수아 때의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구름이 갈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룹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다윗이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33절)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행위를 간섭하심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팔을 붙잡고 계시고(34절), 그의 걸음을 지키십니다(36절).

하나님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37-42절은 이 같은 승리를 묘사합니다. 그 승리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다윗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름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43절).

대체로 사람들은 승리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을 때 그 모든 것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반석이시고 모퉁이돌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전쟁에서는 승리가 요구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지혜가 필요한 이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평화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를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30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떠 떠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32절).

주님의 말씀을 좇으며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정리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 3.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46절의 말씀은 전반부 2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 하리이다”(49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바울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것 같아 보이나 5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부적절한 인용이 아닙니다.

성경학자 Amo C. Gaebelein는 시편 18편을 해석하며 1-6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7-18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19-27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28-42절은 예수님의 승리를, 43-50절은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Gaebelein의 이 해석은 조금 과장된 듯하나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의 주제는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방패시며 달릴 수 있고 안전케 하시는 요새시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터전이십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호와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리다”(46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반석이시고 모퉁이돌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기쁘다 구주오셨네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탄절

24일(토) 저녁7시 성탄전야축하예배

25일(주) 새벽예배 · 성탄감사예배 · 찬양예배: 성탄감사음악예배

우리 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24일(토) 성탄전야에는 저녁7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성탄전야 축하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축하행사를 갖는다. 또한 이날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산타할아버지도 우리교회에 찾아와 함께 성탄을 축하할 예정이다.

25일 성탄절은 주일이 되어 목자들이 새벽에 주님

탄생을 영접하듯 새벽기도회(새벽5시)와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은 성탄감사예배로 드리게 되며 찬양예배 시간은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로 모든 성도가 주님 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음악예배로 드린다.

다양하게 감사함으로 준비되는 2005년 성탄절을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기쁘게 맞아하도록 기도한다.

## 2006년도 교사 임명 및 교사 총회 개최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임명 · 교사총회: 12월23일(금) 7시30분 101호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2006년 한 해 동안 각 교회학교 교사로 섬김의 도리를 다할 교사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의 명단은 후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 별 부서별 임명은 다음과 같다.

한편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은 오는 12월23일(금)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교사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이날 총회는 7시30분에 회무를 시작하여 이종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체총회를 마친 후 8시부터 각 교회학교별 총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 1부 예배 : 교육1, 2국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찬양예배, 어린이 수요예배, 중등부, 고등부), 가브리엘 찬양대 성경공부, 사랑부, 예배다부
- 2부 예배 : 교육3,4,5국(대학부, 청년부, 신혼가정부, 디아스포라부, 새가족부, 요리문답부, 장년 1-5부, 할렐루야찬양대 성경공부, 차량관리부성경공부, 신앙강좌1,2부)
- 3부 예배 : 유치부, 영어예배부

## 2006년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기도회 일정안내

12월30일(금) 오후 7시 101호

2006년도 순결서약식을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 12월30일(금) 오후 7시 101호에서 실시된다. 금번 순결서약식에 참가 신청을 한 모든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번 순결 서약자들을 위한 금반지는 순결 서약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모님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친척들, 선배들, 친구들, 다락방 식구, 교사 등)이 자발적으로 혹은 순결서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후원하는 격려금을 지원받도록 하였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이 나의 자녀 혹은 동생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순결서약을 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기 바란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예 배	12월 30일	이성득 목사
교육1(학부모)	12월 30일	이규정 목사
교육2(초중고)	12월 30일	오정식 목사
교육3(대청)	12월 30일	서명철 목사
기도회	12월 30일	담당교역자

## 호산나 전문대학,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 설명회

12월19일(월) 오후2시 601호실에서

우리교회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우를 위해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 설명회가 19일(월요일) 오후 2시 601호실에서 시작된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현실에 소외되어 있는 우

리나라 장애우를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과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을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학업을 계속하며 한 명의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2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머그컵 세트를 기념으로 드리고 있다.

12월중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필사>  
원용범 집사(3교구) 김미성 집사(13교구)  
<2독>  
(1교구) 국산옥 권사  
(3교구) 김유경 집사  
(4교구) 유명석 권사 홍광숙 권사  
(5교구) 이윤영 권사 이은희 권사  
(7교구) 김숙행 권사  
(8교구) 김현주 권사  
(13교구) 박형숙 집사  
(14교구) 한난숙 집사  
<1독>

- (1교구) 강승웅 집사  
(2교구) 이용선 장로  
(3교구) 이경희 성도 이경구 집사  
(4교구) 조응식 집사  
(5교구) 남옥진 집사 윤용근 집사  
(8교구) 김인식 권사 이영자 권사  
(10교구) 이완형 장로  
(11교구) 이민화 권사  
(12교구) 전기섭 장로  
(13교구) 김동진 집사

## 겨울철 개별 전열기 사용 금지

연일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각 호실에서 개별적으로 커피포트를 비롯한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누전 및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 호실에서 사용 중인 모든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당에서 모든 취사를 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부서의 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금주의 성구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9-10)

Then he said, "Here I am, I have come to do your will." He sets aside the first to establish the second.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Hebrews 10:9-10 [NIV])

2006년을 준비하다

# 새해에 바뀌는 것 몇가지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9일, 10일 이틀간 2006년도 목회정책 협의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새해에 바뀌어야 할 것들을 제시했다. 그 밖의 것들은 지금과 같다.

1. 1월 첫 주에 드리던 새해감사헌금을 송구영신 예배 시 드린다.
2. 주일예배 경배찬양은 3장에서 2장으로 바뀐다.
3. 현관 정문을 공예배시 열때 단, 눈비 내리는 날과 새벽기도회 시간은 단는다.
4. 공 예배 시 3층, 4층에서 내려올 경우 일방통행은 필사성경이 있는 쪽 계단을 이용한다.
5. 모든 찬양대는 주중 연습을 반드시 하고 준비된 찬양을 드린다.
6. 찬송가 간주는 마지막 한 소절로 하고 반음을 올린다.(직접 전조를 한다.)
7. 교회학교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은 국별 또는 부서별로 수립, 추진한다.
8. 장년부 부흥을 위해 전도회, 선교회의 적극 협조와 참여를 독려하여 전도회별, 선교회별로 여러 반을 구성, 운영케 한다.
9. 각 부서에서는 목표설정을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지도교역자와 부서장 중심으로 추진 시행한다.
10. 각 부 교사, 다락방장, 대장, 부장은 주중(특히 토요일)에 유고자로부터 전체 회원들에게 문안과 신앙 독려를 전화로 하고 성수주일을 확인한다. 주일에는 유고자 심방을 담임교사 중심으로 한다.
11. 교회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기도합주단을 구성 운영한다.
12. 2006년도 성경암송대회(10월27일) 범위는 디모데 전서 전장이다.
13. 어린이 찬양예배, 수요일 어린이 예배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
14. 중등부는 5째 주에는 공과공부 시간에 사회, 기도 등 인도를 학생이 한다.
15. 교육1국(유년, 초등부)과 교육2국(중등, 고등부)은 1부 가족예배에 반드시 참여하되 교사는 출석을 점검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 헌금은 예배시 하되 직각생은 분반공부시 할 수 있다.
16. 중등부 교사, 수요일간전도대는 교역자가 반드시 참여한다.
17. 1부 헌금송을 맡은 교회학교 찬양대는 가까운 정숙하게 착용한다.
18. 3부(청년예배)시 필그림 찬양단 리드를 대청부 회원이 맡는다. 전자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를 사용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면서 은혜롭게 진행한다. 찬양인도자들의 복장은 통일하되 인도 후 예배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19. 대청부는 토요일 모임에서 조장중심의 공부와 모든 활동을 하고 주일에는 봉사를 주로 하되 자체모임은 교사중심의 주일학교 운영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20. 대학부 수요일부 예배 후 중보기도 운동에는 교역자가 참여한다.
21. 청년부는 전도중심 여름수련회를 계획 추진한다.
22. 신혼가정부는 예비 신랑, 신부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산시에는 졸업을 하고 교회학교 장년부로 편입학 한다.
23. 디아스포라 부서를 활성화 시켜 교회와 남북통일의 역군으로 키운다.
24. 사랑부는 재가 장애우를 더 많이 전도하여 부흥 시킨다.
25. 호산나 전문대,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 학생 모집은 본 교회 등록된 성도에게 우선권을 준다.(단 모집 정원의 50% 이내)
26. 새가족 환영회는 년 4회로 분기별 토요일 17시에 별도로 행한다.
27. 소요리 문답반 수료자는 성경 공부반으로 반드시 등반하도록 한다.
28. 주일에 부서별 식당좌석 확보는 하지 않고, 교회가 준비한 이외의 음식물도 반입하지 않는다.
29. 교육실 또는 회의실에서 전열기구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각별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 커피 또는 음료를 준비한 물통과 주전자 또는 전열기구 일체를 교회가 수거한다.(참고: 12월17일 토요일 새벽기도 전후 소방 비상벨이 계속 울렸다. 각 방을 소방관들이 조사할 때 각종 전열기구가 발견되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30. 모든 성도는 예배 시 지정석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아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
31. 영어예배 교사나 찬양대원 임명도 반드시 당회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32. 3회 이상 다락방 모임을 갖지 못할 시에는 유고 다락방으로 간주하고 지도 목사나 교구장, 간사가 심방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33. 다락방장 중 교육 미필자는 반드시 다락방장 교육을 필해야 한다.
34. 다락방 모임 때 시작과 끝맺는 시간을 정확히 해야 한다.
35. 다락방에서 교회학교 참여를 서로 독려하여 10,000명 교회학교 학생 비전을 달성케 한다.
36. 초하루 새벽기도회 참여하기 운동을 활성화 한다. 사정상 새벽기도회 참여가 어려운 분일지라도 매월 1일 하루만이라도 본교회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
37. 모든 교인은 전도학교에 필히 등록하여 이수하고 전교인 전도대원이 되게 한다.
38. 선교와 전도를 전담할 교역자와 교회 사회사업 활동 전담자를 세워 구제와 선교의 기둥을 더욱 든든히 한다.
39. 주일 식당 운영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찬양예배 참여자들이나 오후 봉사자들이 성수주일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주일 이외 수요일을 포함하여 주중식사는 결혼식이나 교회공식 행사 외에는 매식을 원칙으로 한다.(한 끼에 1인 2000원으로 하되 이 돈은 구제와 선교 기금으로 쓰이게 됨으로 교역자나 직원도 예외가 없다.)
40. 교회버스는 본래 장애인 운송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교회 공식행사 외 지회 또는 부서별 필요시에는 사용자가 기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지방에 장례식 위로차 갈 경우 교역자에게만 교회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성도들이 참여할 경우 역시 기름 값, 톨게이트 값, 식비 등을 부담한다. 단 시내에서 천국환송예배가 거행될 경우 찬양대원을 위하여 버스 운영이 가하나 장지가 지 갈 경우에는 상주가 기름 값을 지불한다.
41. 샬롬경로대학은 교회가 점心和 외부 강사비를 제공한다. 주부대학은 강사비를 교회가 지불하되 식당운영 기준대로 식사비 2000원씩 부담해야 한다.
42. 도서실은 전문인력을 찾을 때 까지 자원봉사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운영한다.
43. 여름철에 시행하던 농촌전도대는 전도회나 선교회 중심으로 준비하여 1년 동안 어느 때든지 작은 규모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예산은 회비와 일정액의 교회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개인 모금행위는 금한다.
44. 단기선교팀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청년부·대학부 중심으로 30명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 장년부원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일정액의 선교비를 충당하는 이에게 허락한다.
45. 교회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신고를 하고 101호(웨스트민스터 홀)를 사용한다. 102호는 도서실이므로 문을 닫는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한다.

2006년 순결서약식을 기다리며...

# 순결서약은 '마음의 방패'

오주명(대학부)

순결서약을 한지 어느덧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결서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얼마나 어렵기에 '서약까지 해야만 하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처음 낀 서약반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설레이는 마음 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이 시대에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소위 '능력'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대에서, 순결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지는 '순진한 바보', '촌스러워', 혹은 '천연기념물'이라며 조롱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TV를 틀거나, 컴퓨터를 켰을 때,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일상에서조차도 문란한 문화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극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문란한 문화 속에서, 육체적 순결을 넘어 정신적 순결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많은 유혹들은 결코 인간적인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한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순결서약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족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순결서약은 주님께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의 방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제사드릴 때는 흠 없는 정결한 양을 바쳤습니다. 이번 순결서약을 계기 삼아 주님께 흠 없고 정결한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서울교회에서 매년 1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순결서약식

만민에게 진도 -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

# 장애인 교육, 하나님이 주신 사역!

김복순 선생 (에바다부)



14년간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 드렸던 온 교인의 염원인 교회 현당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자폐아 자녀를 둔 저희 가정의 소원인 호산나 전문대학과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둘째 아들인 진호는 자폐아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방과 후면 장애아를 위한 마땅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30-40분 교육을 받기 위해 1시간 정도 걸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치료교육 시간보다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비싼 사교육비(10분당 12,000원)에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오래전부터 이 같은 방과 후 학교나 대안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전문대학)과 복지재단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기다렸던 터라 저희들은 물론 모든 장애인 가족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서울교회가 이처럼 귀한 사역에 앞장서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장애인 교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장애인들도 교육과 노동, 복지 차별철폐 등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나 학교도 없고 교사도 부족해서 장애인 75%가 교육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5%는 그나마 교육을 받는다 해도 그 중 56%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암담하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길거리로 나가 정부와 맞서고 있

는 현실과 때를 맞추어 서울교회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호와 이레되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며 크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지체인은 교육이 필수이며 교육을 통해 장애를 경감시키며 치료와 동시에 중복장애를 예방하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달라짐으로 장애인에게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만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그룹홈을 연계해서 장애인에게 교육과 훈련, 작업, 운동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설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델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정에 장애자녀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 또는 그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다시피 해서 가정에 장애자녀가 태어나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중 삼중의 모든 고통을 떠안게 되어 가정마저 파산되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해주시는 여호와 이레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 드리며 호산나 장애인 학교와 복지재단이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 큰 사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9일(월) 총회표준 주석 편찬위원회에 참여한다.
- 개업 : 이동만 집사(2교구) 호도스 (남성기성복) 논현동 두산빌딩내 545-0375
- 주간 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12월18일) 한나전도회(12월 25일)
- 금주의 식사 : 장명순 권사 김재길 성도 가정 박석현 성도 김점숙 집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볼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어 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2. 임명받은 일꾼들이 성령충만하여 사명자로 섬기도록
3. 연발연시 예결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정치적 회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즉시 폐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한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1부 오전 11시
예배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